

랑카팀 3월 이야기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

-랑카팀 랑카오다.



-Raon Atti 7th-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 -랑카팀 랑카오다.

무엇이 있을까?

랑카팀 3월 일정 #3

우리들의 정규프로그램 #4

현재프로그램 #5

사라진 프로그램 #6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7

혼자서도 잘해요 #8 - 9

누구? 누구! 누구. #10 - 16

우리 집 소개 #17

Nayana의 스리랑카 적응기 #18 - 20

싸리가마파다니 #21

문화와 문화, 그 경계에서 #22 - 24

추억의 조각들 #25 - 30

우리들의 3월 이야기 #31

2012 라온아띠 7기 **랑카팀** 3월 일정 :D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5	6	7	8	9	10
			도착	*환영회 *YMCA 구경 *이름배정	*물주기 - 우천시 취소 *라온아띠 OT *Children's Club *모라투와시장구경 *첫 과일,누들먹음	*물주기 *아띠방 정리 *첫 밥해먹기 *교회-켈룸
11	12	13	14	15	16	17
*해수욕장	*콜롬보 투어 *커뮤니티 미팅	*허벌티 준비	*페인트작업 -놀이터 *물주기 - 우천시 취소(13일,15일) *싱할라 수업-아쇼커(현지 코디)		*피켓 만들기 *Children's Club	*휴일
*초대 -말린드라	*조출한 모임		*루완다 병원 -허벌티 *Youth Club	*니할의 방문	*조출한 모임	*대청소 *주말활동
18	19	20	21	22	23	24
*페인트작업 -놀이터 *물주기						
*초대 -말린드라 -암마 (주인집)	*아쇼커와미팅 *피켓 만들기 *디그롤라가든 칠드런 *커뮤니티 미팅	*피켓 만들기 *싱할라 수업 *장보기	*루완다 병원 -허벌티 (with 노래) *벽화아이디어회의 *Youth Club	*비자연장 -콜롬보방문	*Children's Club	*배드민턴 경기 구경
			*랑카병원 -닐미니 (with 전체)	*KFC 방문	*랑카병원 -닐미니 (with 짜두레)	*랑카병원 -닐미니 (with 칼푸나) *라면 Day *주말활동
25	26	27	28	29	30	31
*물주기 - 우천시 취소(29일,30일)						
*대청소 *주말활동	*디그롤라가든 방문 *커뮤니티 미팅	*싱할라 수업 *목공소 구경 *장보기 *허벌티 준비	*루완다 병원 -허벌티 (with 노래) *싱할라 수업 *Tsunami effected 방문 *Youth Club	*목공소 체험 켈룸다침	*싱할라 학습 *Children's Club	*탁구 배우기
	*랑카병원 -닐미니 (with 켈룸)	*랑카병원 -닐미니 (with 나야나)	*랑카병원 -닐미니 (with 짜두레)	*랑카병원 -켈룸 (with 닐미니)		*대청소

우리들의 정규프로그램



물주기
월-금 8 : 30 - 9 : 00
화분에 물주기 + 피켓으로 환경 캠페인



Digorolla garden class
월요일 3 : 00 - 5 : 00
수준별 영어수업 외 교육수업 진행 격주 레크레이션 진행



Herbal Drink
수요일 아침 8 시 (준비 전날 + 아침 6시 15분)
병원환자들에게 건강음료 나눠주고,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Youth Club
수요일 저녁 7 : 30 - 9 : 00
YMCA 18 - 40살 청년들 모임 (한주 회의, 한주 친목도모)



Childrens Club
금요일 오후 4 : 30 - 6 : 00
YMCA 어린이들 친목도모 수업 과 게임 진행



주말프로그램
토요일 아침 10 00 - 12 : 00
YMCA 체육활동 (베드민턴, 탁구)

Committee meeting
월요일 저녁 7 : 30 - 8 : 30
라운아티프프로그램을 위한 이사회원들과 미팅 (한주 일정논의)



재미있는 심할리어 수업
화, 목요일 아침 10 : 00 - 11 : 00
라운아티프들을 위한 코디네이터 아쇼카의 현지인이 수업



라운아티프들의 앞으로 진행 할 프로그램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영어수업 진행
- 쓰나미 피해지역 아이들과의 만남
- 라운아티프 7기 벽화 + 5기 벽화 옆 빈 공간
- 그 외 페인트작업들과 캠페인(350ppm)

3월 동안 프로그램 기존 진행해왔던 프로그램
파악과 적응기간으로 인해 전 기수단원들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빈틈사이로

이제 우리가 그려가는 프로그램 시간이 메워가겠죠? (:



현재 프로그램

칠드런 클럽

매주 금요일 칠드런 클럽은 모라투와 YMCA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라온아띠가 직접 1시간 반여동안 아이들과 레이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후에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아이들과 친목위주의 게임 (진주 조개 팡, 신문지 접기, 젓가락 게임) 미술수업(색칠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고학년과 저학년을 분반해서 격주로 진행하는 수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유스 클럽

매주 수요일 18~40세로 구성된 유스클럽은 모라투와 YMCA에서 주로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캠페인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 라온아띠는 유스클럽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재 친목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헌혈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허벌드링크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15분 YMCA에 자리하고 있는 루나와 국립병원에서 진료 대기환자 및 치료환자 들을 위해 허벌드링크 (녹즙과 비슷함) 를 화요일 저녁 재료 손질을 끝내고 다음날 수요일 아침부터 즙을 내어 끓인 후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허벌드링크를 나누어 드립니다. 병원 방문 시 6기에서 진행하여 반응이 좋았던 우유송을 부르고 현재 7기에서도 우유송과 한국 동요를 섞어 부르고 있습니다.

커미트미팅

매주 월요일 모라투와 YMCA의 브도멤버 (이사회)와 미팅으로 한주 동안의 일정에 대한 소개와 피드백을 받고 생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재 적응기로서 생활에 불편한 점과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자상한 관심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주말 프로그램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일정에 포함된 시간으로써 출근 후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합니다.

보드멤버 니할의 배려로 탁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배트민턴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음악 클래스가 토요일 오전에 있어 짜두레 (김재범) 단원의 경우는 음악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프로그램

태권도 수업

매주 금요일 3시와 토요일 11시에 진행되던 태권도 수업에 대해서는 국내캠프에서부터 팀에서 논의가 계속되었다. 6기에게 전해 듣기로는 2기부터 계속되어서 여러 기수에 걸쳐서 배운 아이들도 있고 전만큼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활동 후반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인수인계를 받았다. 7기 단원 중에는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음악이나 미술 수업으로 대신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Mr.아쇼카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지난주에 보드미팅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라온아띠에서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미티에서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Mr.니말이 태권도 수업을 이야기 꺼내면서 라온아띠가 떠난 뒤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 함.

한국어수업

6기때에는 기초반, 시험 대비반, 중급 회화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고 함. 한국어 수업에 오는 사람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알고 있는 정도도 달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모라투와 YMCA에서 전문성 있는 한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4월중으로 열기로 하여서 라온아띠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처음 왔을 때는 곧 이라고 했었는데 3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는 개설되지 않았다. 사라진 한국어 수업을 대신해서 Basic Spoken English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영어수업에 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참조.



새로운 프로그램

Spoken English Class

이어져오던 “Korean Class”를 더 이상 라온아띠가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 YMCA에서 더 전문성있는 한국어 교사를 구했고, 그 분이 Korean Class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Children’s Club을 마치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Spoken English Class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오랜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영어는 스리랑카의 제2외국어가 되어버렸고 Moratuwa지역에서도 어딜가나 어색하지 않게 영어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과 돈 혹은 마땅한 기회가 없어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 했던 Moratuwa의 주민들이 있다. 애초에 이 수업을 개설하고자 했던 목표는 그런 주민들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보자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현재는, 어찌저찌 하다보니 YMCA 현지스텝들이 이 수업의 대상(?)을 Children’s Club의 아이들로 한정짓기를 원하고 있고 별 탈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현재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한 리플렛 제작까지 마친 상태이며, 4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Street Children in “Bethany Home” at Moratuwa

저녁에 술이나 음식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면, 상가 앞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지 코디네이터의 말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은 모양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길가에 버리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Bethany Home에 맡겨진다고 한다. 그리고 (아마) 다음달부터, 이 아이들과 함께 모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스케줄 탓에, 이 아이들을 만나보는 일정이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어떤식으로 진행될 수업인지,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Class for Tsunami effected Children in Lunawa

몇 해 전,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를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 역시도 그 쓰나미로 40,000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해변가에 자리잡은 지역인 Moratuwa역시도 그 피해를 비껴가지는 못했다. 40명의 사상자를 냈고, 수천명의 부상자와 피해자를 냈다고 한다. Moratuwa의 Lunawa지역이 유난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정부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했는데 그 주택이 Moratuwa YMCA와 꽤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우리는 이 주택에 살고 있는 100여가구가 넘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 주택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아이들의 인원수와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이 추려진 뒤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혼자서도 잘해요!

#1



#2



#3



2주간의 페인트 칠

YMCA 앞 작은 놀이터에서 처음 시작 된 페인트 칠은 엄살일지도 모르지만 참 많이 덥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에 입혀 있던 페인트를 지워내는 작업을 반복하고 다시 페인트를 덧칠하는 일은 생각보다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찌는 듯한 하늘 아래에서 가만히 서있기를 반복하고 흘러버린 페인트를 다시 덧칠하기를 반복하며 짜증도 많이 났고 여기에서 무얼 얻어갈까? 라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 새롭게 꾸며진 놀이터에서 해맑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을 추억할 수 있어서 그저 행복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1



#2



피켓을 들다!

지난 기수에서 사용되었던 피켓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시작되었던 피켓 꾸미기. 긴긴 토의와 아이디어를 모은 끝에 화분에 쓰레기를 던지는 말라는 그림과 글자를 새긴 피켓, 또 실제로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붙여서 만든 피켓을 들고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친절하게 현지어를 다시 새겨놓는 센스!

누구? 누구! 누구.

지금부터 랑카팀 7기의 각자 자기소개를 볼까요?? :P



짜뚜레로 다섯 달 동안 살아가기 좋은 곳 모라투와, 스리랑카.
이것 저것 만족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중,
사이 사이 게으르고 가끔 부지런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기.

- Chathura

새로운 이름이 생김, Nilmini.

어제보다보니 스리랑카 모라투와까지 흘러들어옴 늘 행복하게 사는 건,
한국에서든 이곳에서든 불가능하던 건 진작에 깨달아버림.
그래도 요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만해서 좋음 :))



Kelum 꽃봉우리 케elum ..

청춘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잘 놀다가
가고 있습니다. ㅋ

잡생각 버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가는게 목표.

한달 동안 나아나로 살아오면서 앞으로 나아나로 4달동안 살고 있을
스리랑카에서 무엇보다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 4달이 행복하고 많이 웃기를
바라면서!

-스리랑카의 나아나



KHALPANA 칼푸나 'THINK'라는 뜻인 내 이름.

웃음이 이쁘고, 사랑이 느껴지는 이 모라투어, 스리랑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신이나게 재미지게 하루를 산다. 나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이쁘따다-

**랑카 이곳, 아름답지 아니한가.



KHALPANA 칼푸나 (소명)

라운아디 랑카 7기는 적응기를 겪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Khalpana가 본 우리팀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야무



누구? 누구! 누구.

우리의 3월은 어떤 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떴다! 비행기



찰칵!



말레이시아 끝없는 기다림



아유보안 스리랑카?



첫날 단체사진



월권 세레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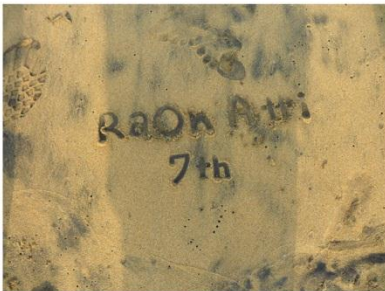
O.T 쉬는시간



정은범 목사님



해수욕장이지롱~



RAON ATRI
7th



월권 클론본



클론본 YMCA



게이트 시어



안마실습 초대



말린드라 초대



유스클럽



허벌드링크 준비



허벌드링크

짜뚜레 (재범) 문화생활인.

나! 캄카팀 영어소동과 나이를 맞고 있는 친절한 짜뚜레씨입니다. (은화한 미소 방긋-)



내 친구들 내 나이 똑같애.



이제 적응중



나도 남자!



미소-



나 귀엽지?



공 즐겨가?



시랑이



이히히-



아, 심심한걸?



크리켓!



나의 문화생활



베틀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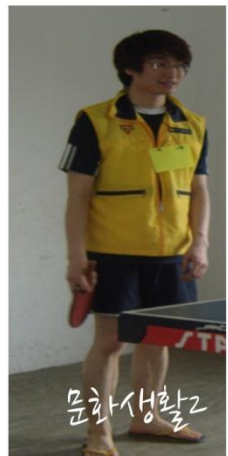
그래도 심심해..



괜찮아!



나에게진 치킨이있어



문화생활



나 바버-



도와줄게!



난 섬세한 남자



동심으로 출발-

특징 : 유스에 꼬래 친구가 많다. 직책 ; 친절하고 섬세한 남자.
 특기 : 의식만한 척 사진찍기 잘함. 능력 : 혼자 시간을 잘 보내고 잘 사용함.
 단점 : 나이가 있어 체력이 금방 늙다운이 됨.

닐리니 (서민) 막내 애들이.

나! 랑카팀 막내. 아직 발목이 다 낫지 않았지만, 몸매 스타일의 스타일리스트-



우잉



귀엽지?



끼리티 혼다이-



백이백이



쓰러기 줘자.



내스타일어때?



나 다른날에 찍은거야.



진저는데..



아스카는 날 너무 좋아해



난 기타리스트야



짙은 부엌지?



괜찮아요



나 잘하지?



내머글볼봐나



으앙 ㅈ ㅈ



내발...



나만이라..



딩가딩가



나 밥잘먹어



끼리티는 기쁜



또 냐냐



딩가딩가



또 먹을거지!

특징 : 모든 음식이 곱두가되는 그날을 희망하고 있음.
 직책 ; 최고의 스타일을 소유하고 있음.
 특기 : 하루에 한번 콜롬보에 랑카병원에서 출퇴근 하기.
 능력 :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식습관으로 음식을 탐방중.
 단점 : 인터넷방 갔다오면 기분변화 폭이 심해짐.

케르핀 (승창) 캡틴.

나! 랑카티م 캡틴. 난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이면 다 화보. 내 화보를 보러 출발-



순수한 척중



잘생긴줄 안



나의 잘생긴 모습



잠잘 준비중



어제 잘까?



일단 뛰자.
난 뛰는거 좋아하니



6 캡틴 괜히 했나?



아냐,
뛰지내가^^



아, 근데 배고프다



어? 먹을꺼?



가까이-



난 백명수



자고



또, 자고



또 자야지



안대!



문동해야지



우- 내 엉덩이



난 고정관념을 깨냈어



몇시간정도
필요해



느끼한 나



멋져!

특징 : 아무데서나 자기, 땅바닥 음식 찌어먹기.
 직책 : 총명 캡틴 (예비한척 귀여운척 함.)
 특기 : 느긋하게 안경벗고 달리기하기.
 능력 : 인간 모닝콜 새벽 5시부터 대기. 5대기.
 단점 : 자기가 백명수 안 닮은 줄 알고있음.

나야나 (수경) 사진작가.

나! 캉카팀 사진작가. 우리팀에서 모든사진은 내가 맡고있었다. 캡틴 현재 멜로우카드-



드디어 캉카로! GO



나! 나야! 나!



아 맛있당!



히!



먹을 수 있을때 먹어야되



내꺼야 치킨은!



나 구경해요.



힘들어 기 기



나 페인트신!



아! 페인트...



또 페인트!!!



생각안



나 웃음이 이쁘네.



화보같지?



나 그저웃죠.



방긋**



저는!



열심히 운동도!



가프리와 대정환 포즈도



나! 잘해!



아묘미 아지...



아 난 바빠

특징 : 사진을 총 담당.
 직책 : 오락가락하는 마음 느끼기.
 특기 : 본능에서 나오는 귀여운 척,
 능력 : 아직도 음식적응중, 먹을때 확실히 먹음
 단점 : 맨붕에의해 기분 기복이 심함.

칼푸나 (소영) 잠신!

나! 캠프 잠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루시루 집'에서 해결한다. 내 활력소 루시루, 오션드-



칼푸나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네기노



난 먹시 요리



단순노동



밥상 행동



내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 루시루가족



내 활력소 오션드



뚝뚝재밌어



아순카 따라하기



초딩처럼 놀기



아요미!!



루시루생각



오션드도-



아 피곤하다



그래도 바깥



또 바깥



스타일-



아 심심해..



루시루 보러가야지

KHALPANA 칼푸나(소영)

특징 : 루시루 오션드집을 하루에 5번이상 감.
 직책 : 밥상. (루시루 괴롭히기, 나야나 괴롭히기)
 특기 : 글꼴사진 찍히기... 정상적인게 잘없음.
 능력 : 루시루와 오션드에게 배수야기 듣기.
 단점 : 루시루, 오션드 밖에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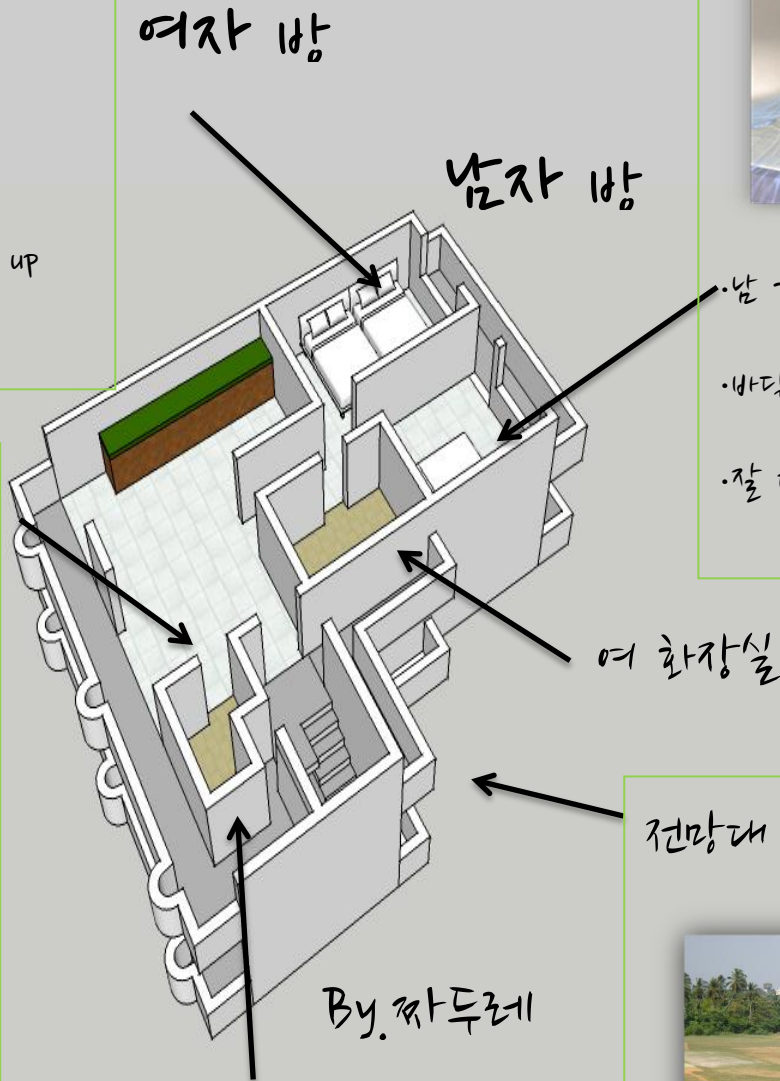
우리 집 소개



- 넓은, 매트리스 교체 후 편안함 UP
- 리얼 수면방



- 날 거주지
- 바닥생활 겸용
- 잘 때만 사용



거실



- 주 서식지
- 머리카락이 많음
- 회의, 오락, 음주, 낮잠 식사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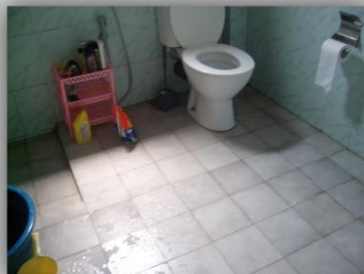
전망대



• 옆 강가 및 운동장 전망

남 화장실

• 주방에 물이 안 나올 때는 식기 세척장



처음 스리랑카를 찾아왔을 때 음식에 대한 걱정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활동 첫날부터 나의 고민은 활동, 팀원 간의 생활, 그리고 날씨의 대한 고민에 음식까지 추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게 되었다. 음식적응을 위한 배려로 현지화 된 중국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었다. 너무나도 다른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워낙 먹는 것을 좋아했던 나였기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이었다. 거기에 5개월 동안 음식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감마저 추가되어서 처음 일주일만은 정말 5개월의 식생활에 대한 걱정을 끝도 없이 했었다. 물론 음식에 대한 나의 고민은 2주차에 맛본 현지음식을 먹고 나서 더 이상 고민의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747의 커리와 말린 드라 집을 방문하고 먹은 가정식 커리를 만난 후 나의 식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게 되는 첫 주에 했던 고민과는 전혀 상반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비록 다른 고민이 생기긴 했지만 스리랑카의 음식이 점차 맛있어지기 시작하면서 스리랑카의 적응에 한발자국 다가서는 첫 달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은 음식적응 후 만들었던 나의 스리랑카 음식에 대한 찬양의 구절이다!

음식적응 하고싶다
중국음식 먹지말고
칠사칠로 바로가자
이맛이다 랑카커리
먹세먹세 먹어보세
맛나맛나 랑카커리

Nayana의

스리랑카 적응기 -음식편





747스페셜

-골든 포크에서 볼 수 있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다양한 고기를 재료로 한 볶음밥
-금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특식
-소스가 탕수육 소스 같다는 특징이 있음
★★★★☆

-747에서 볼 수 있음
-일반 커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다양한 재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식
-평소보다 고기의 양이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음
★★★★★



믹스 프라이드



이름 : 탈러블리
 -약간 한국의 깨강정 맛과 비
 슷한 스리랑카 전통과자
 ★★★★★☆

이름 : 생선커틀릿
 - 그냥 생선가스라고 생각하면
 됨! 참치 맛이 나며 향신료 향
 이 적음!
 ★★★★★★



이름 : 사우칸지
 -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리랑카
 전통음료, 호박죽 느낌이나 맛은
 전혀 다름
 ★★☆☆☆☆



이름 : 코코넛 케익
 - 코코넛밀크와 꿀로 만든 케익!
 엄청 단 케익!
 ★★★★★☆

이름 : 켄다콜라
 - 안에 싸여있는 약간 떡 같은
 스리랑카 전통 음식
 ★★★★★☆



완전 나야나 생각!

그러니 악플은 말아주세요! :D



_ YMCA 토요일음악수업



낮은 도

모라투와 YMCA 3층 작은 방,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선생님 두 분에 남자아이 2명, 여자아이 30여명.

악기는 바이올린 다섯 대, 전통피리 둘, 바얀느, 다얀느 2대씩, 작은 피아노와 풍금을 합쳐 놓 듯 한 악기.

중간 도

한 주는 노래, 다른 한주는 연주라고 들었는데 따로 구별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 노래를 할 때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따로 부르는데 두 번째 그룹이 더 잘 부른다. 첫 주에는 한 시간정도 옆에 앉아서 수업을 구경하였고 둘째 주부터 수업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리엔탈이라서 괜찮은지 물어보셨다. 스리랑카에 왔으니 스리랑카 음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처음 접하는 음악을 수업 그날그날 보고 따라가려하니 생각보다 힘이 든다. 첫 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다섯 명의 바이올린 아이들이 아무도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지 않아서 연주를 안 할 때도 악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아이들이 적은 이유를 더 찾아보고자 한다. 체육활동을 하러 오는 여자아이들은 많은데 음악이나 춤에는 남자아이들이 왜 없는지를 찾으면 이곳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

높은 도

도

1. 오선지가 아닌 일반 노트에 글로 표현하고 읽는 다는 점

: 같은 '도'여도 높은지 낮은지를 따로 표시해 주고 샵과 플랫도 따로 각 음에 표기하여 줌. 높은음자리표 옆에 표기하여 한 번에 적용하지 않는 다는 점이 다름. 샵과 플랫의 적용도 <파도솔레라미시> 순으로 되는 것 같지 않다. 아직 샵과 플랫이 많이 나오는 곡을 두 곡밖에 안 해봐서 정확한 정보 아님. 서점에서 음악책을 사려고 해도 악보가 글로 표현 돼 있어서 읽고 연주하기가 어려웠다.

b 레

2.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점

: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곡에서 연주하는 부분과 노래로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음. Intro라고 쓴 부분을 처음에 하지 않고 노래 중간에 넣은 점도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임.

아직까지는 <싸리가마파다나>를 바로 <드레미파솔라시>로 읽지는 못해서 악보에 옮겨 적고서 따라가는 정도 이지만 곧 바로 연주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두 번 수업을 들었는데 10 여 곡을 배웠는데 가끔은 수업에

_ 하고 싶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

스리랑카에 올 때 바이올린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악기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팀의 문제인지, 지고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바이올린을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다. 귀국단원이나 간사님께 여쭙보고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큰 짐이었다.

모라투와에 와서 토요일에 음악 수업이 있는걸 알고 수업을 듣고 싶다고 Mr.아쇼카에게 말했을 때 수업을 듣지 말고 새로 반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스리랑카의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두 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태권도 수업을 대신해서 음악이나 미술 수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온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시작해보고 싶다. 정확히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음악을 같이 하고 싶다는 게 강한 것 같다. 같이 수업 듣는 다섯 명의 바이올린 어린이들과 함께 합주를 하고 싶은데 시간과 공간이 해결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짜뚜레 삼의 첫 달을 보내본 지금은 가져오길 잘 한 것 같다. 그리고 남은 네 달이 지난 그 시점에도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라서 행복합니다.



문화와 문화, 그 경계에서..

누구를 위한 캠페인가?

도로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위로 날아드는 각종 쓰레기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쓰레기를 투척하는데 우리에게 환경 캠페인을 이어나갈 의지가 생길 턱이 있다. 그래도 심호흡 한 번 크게 내쉬고, 마음 다잡고 쓰레기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내 몸을 아릿하게 만드는 버스의 경적소리가 내 뒤통수를 아슬아슬 스쳐간다.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모르겠다.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경적소리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에 속력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Don't Throw Trash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 내린 이유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 이외의 다른 제안들은 문화로 인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인식개선 캠페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 거라 생각해왔다. 그런데, 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머쓱하더라. 나도 이유를 모르겠더라. 분명 바른 생활을 위한 바른 생활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냥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밖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땅이니 우린 지구를 보호해야 해요!' 라고 외치기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의 무게만으로도 너무나도 버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구를 생각하자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생각보다 민망한 일이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 먹을 음식들이 넉넉히 있어서 조금은 다른 고민을 위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캠페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성의 원죄, 무화과를 따먹은 이브

우리팀의 Khalpana와 나는 생리통이 매우 심한 편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주말 내내 쉬 수 있었던 터라 별 난리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불쌍한 Khalpana는 출근을 해야 하는 날 아프고 말았다. Khalpana가 조퇴한 뒤에, 아쇼커(Moratuwa YMCA 현지 코디네이터)는 나에게 나도 생리통이 심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정말이지 충격이었다. 여자들은 아주 오래 전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큰 잘못’이라 함은, 이브가 무화과를 따먹은 사실을 일컫는다. 그 잘못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불결한 것들을 배출해낸다..

그리고 한 번은 Chathura와 아쇼커와 함께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을 고르는 과정에서 둘이서 의견이 맞질 않아 소소하게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아쇼커가 Chathura에게 하는 말, “남자는 여자가 싫다고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야 해. 그게 진짜 남자야”. 이걸로 끝이 아니다. “부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남편이 안된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스리랑카의 문화야.”라는 등의 온갖 뜨악 싶은 이야기들을 술술 쏟아낸다. 우리가 조금 친해졌다고 느낀 뒤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웃으며 “아쇼커 장난치지 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쇼커는 절대로 천만에!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우리 팀 여자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많은 차별의 요소들이 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스리랑카의 ‘문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그저 한 개인의 가치관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곳의 가정이 가부장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생활이 남성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찌됐던 나는 이곳에 최대한 스며들고 싶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만을 갖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곳에서 마초적인 남성들을 보거나 가부장적인 사장들을 볼 때는 괜찮다. 진심으로, 괜찮다. 다만, 남성중심적인 생활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 벌써부터 동급생 남학생의 말에 반대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워하는 Children’s Club의 10대 여학생들을 볼 때는 조금은 괜찮지 않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해결의 방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스리랑카에 언제쯤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거북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지 궁금하다. 또한 동시에, 굳이 남성중심주의적인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 터져 하는 내 자신이 어찌면 ‘내가 살아온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제국주의의 발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혹은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순응하며 살고 있다. 내가 이 사회를 건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속은 터진다.

한 여성의 삶이 치열해지기 위해서는, 온갖 차별전선의 최전방에 있어야 한다고 했던가. 온갖 차별전선의 최전방에 떨궜는데, 나에게도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다.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늘 웃는 낮이어야만 한다. 참, 속 터진다. 진정으로 현지화되어 이 활동에 충실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모든 인류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

야 한다고 믿어온 가치관에 대한 집착도 접어야만 하는건가.. 내 가치관과 현지화가 맞부딪히는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매 순간 고민이 된다.

P.S) 월말 보고서로 제출하기 직전 다시 한 번 글을 읽어보니, 내가 스리랑카의 현실을 한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글을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리랑카 여성들이 이곳에서 아주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을 왔을 때에 남편으로부터 겪는 폭력이나 억압보다는 덜한 수준임이 분명한데...스리랑카에 존재하는 남녀차별의 요소를 무언가에 뒤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직 세계 곳곳에(한국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중심주의적인 현상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사실, 지금은 이 글이 부끄러워서 보고서에 넣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지만, 성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실어보도록 하겠다. 매 순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지금이다.

<추억의 조각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객관성을 배제한 내용임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혹여나 전 단원 및 모라투와 YMCA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저의 보고서의 내용이나 사진의 내용에 불만이나 실망을 표하실지 모르시나 다시 한번 지나치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쓴 내용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처음 스리랑카 모라투와라는 땅에 발을 딛고 처음으로 YMCA 방문한지 한 달 채 되지 않은 켈름(승창)은 내가 모라투와라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 지 답답한 고민 끝에 YMCA 에서 만나게 된 라온아띠 라는 주제를 정했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할까라는 꽤나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몇 글짜 끄적여 보겠습니다.

이곳 모라투와 YMCA 는 이미 라온아띠와 오랜 시간을 보낸 지역입니다. 오랜 시간만큼이나 이곳 모라투와 Y 에 남겨진 물질적인 흔적도 꽤 많은 편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방문하면서도 눈으로 마주친 것들 역시도 라온아띠 단원들의 벽화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4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2012 년 3 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기획하고 쓰는 순간에도 이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괜히 끄집어내어 사사로이 평가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라투와 Y 에서 라온아띠라는 아시아의 친구들의 뒷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난 시간을 기억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저는 더 고민하게 되었기에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 & 컴포스트빈

저희가 모라투와 YMCA 에서 출근해서 하였던 첫 번째 일은 재활용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분리수거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라온아띠 팀의 초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고 전 기수단원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실천되었던 일입니다 . 종이, 플라스틱 , 기타(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것들) 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간단한 재활용 쓰레기통의 안이 갖가지 쓰레기들로 엉망으로 되어있는 걸 발견하고 저희는 하나하나 끄집어내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이 날 이후로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아띠분들의 재활용에 대한 열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도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또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컴포스트 빈 역시도 음식물 이외에 비닐 , 신문 갖가지 쓰레기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모라투와 지역에 80 여개의 적지 않은 컴포스트 빈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오랜 시간동안 라온아띠와 함께한 프로젝트 였었기에 안타까움을 넘어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직 재활용 쓰레기통이나 컴포스트빈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설들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재활용 시스템을 전파하는 YMCA 에서조차 하지 않는 일을 과연 다른 곳에서 실천할까 ?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현지 코디 아쇼커의 입장에서 들었던 말은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아직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화는 바뀌어 질 수 없는 것, 문화적 전통성, 아이덴티티(Identity)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문화로 이해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생각을 팀원들끼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라는 자체는 바뀌어 질 수 없는 것이기 보다 이 곳 사람들이 먹고 사는 행위 자체가 문화라는 한 팀원의 의견을 들었을 때야 조금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지역 사람들의 일상이 이곳의 문화가 된다면 3 년이라는 시간동안 라온아띠가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찌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이외에 6 기의 보고서를 통해서 모라투와 시청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기에 더욱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느끼기에 더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습관일 뿐이야” 라는 단순한 생각이 현장에서 경험한 뒤로는 왜 그 동안 많은 아띠가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화

모라투와 Y 의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아띠들의 벽화는 마친 지난 사진을 보듯 한 벽면씩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각 기수들마다의 다양한 색깔이 담겨진 벽화는 입구 쪽에 자리한 이유로 조금 흐릿해진 벽화를 제외하고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매 기수 마다 새겨진 벽화는 이곳 사람들에게 추억을 되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벽화 중 이곳 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벽화(?)는 아마 최후의 만찬 벽화일 것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이 벽화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처음 그려질 당시와 달리 보존을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위 쪽 벽면(캐노피)을 설치하고 옆쪽에는 돌 조각들로 장식하였습니다. 단점이라면 그 옆면을 그려야 하는 저희의 부담감이랄까요 ... ㅎ



그 외에



중앙홀과 각층 마다 함께했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간혹 방문하신 분들이 이 사진을 유심히 지켜보시다 가기도 합니다. 또 6 기에서 진행했던 페트병 화분들도 아직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운아띠 가든

라운아띠 가든은 안타깝게도 언제 훼손됐는지조차 모르게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생활해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YMCA 건물 안에 이미 많은 화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많은 화분을 Jayarathna (관리인) 한 분이 모든 걸 관리하며 라운아띠 파견이 비는 시기에는 YMCA 앞 도로에 아띠들이 만든 20 여개의 가로수까지 관리인 혼자 돌보아야 했기에 뒷 부분의 가든 관리까지는 힘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로수 콘크리트 링

YMCA 앞 4 차선 도로에 있는 가로수의 현재 개수는 23 개입니다.(훼손 콘크리트링 3 개 - 보수예정) 다만 나무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몇 곳의 나무가 현재 있지 않다는 점과 그 튼튼한 콘크리트 링조차도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조각나있는 콘크리트 링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콘크리트 링이 가로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고민, 또 우리가 간다면 이곳의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안이 아직 없어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더 자랐을 때 콘크리트 링을 훼손된다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혹시 이 보고서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절한 상품도 함께 하겠습니다 (:

또 우리가 왜 이곳 가로수에 물을 줘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청이나 정부기관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지 코디의 설명으로는

현재 YMCA 앞 도로는 수도인 콜롬보와 연결도로로써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YMCA 를 홍보와 도로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다는 점 ,또 환경캠페인 문구 등 Y 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가로수들의 일부는 정부나 시청 대신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대가로 상업광고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YMCA 에서 이곳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의 상업광고로 쓰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억의 조각은 모라투와를 거쳐간 라온아띠입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닐 때 전 기수 단원들의 현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 누구를 알고 있다면 반가움을 표시하는 사람들.

“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재미있다”, “ 힘이 셸다”, “노래를 잘했다”

많은 말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기억하는 따뜻한 표정과 말들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많은 아띠들을 거쳐가며 연락되지 않는 그리움, 결국은 떠난다며 조금은 섭섭함을 표현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그림다는 하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많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존 중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또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추측과 판단과는 다른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벽화, 가든, 가로수까지 라온아띠의 흔적들을 쫓으면 느낀 고민들은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이게 남아있을까?

조금 어려운 말로 지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성에만 너무 얽매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굳이 무언가 남기려고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뒤집어 얽혀지고 흔히들 말하는 멘붕(멘탈붕괴) 찾아와 가끔은 판단이 서질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한국에서의 생각과 달리 지금은 이곳에 있는 것들만 유지시키기만 하여도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직 명확한 답도 대안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고민하게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앞으로 남은 4 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깨지고 부서질 지 기대가 됩니다. 또 걱정도 됩니다. 그저 가장 좋은 것들은 마음에 남는다는 말을 믿기에 무언가 남겨야 한다는 마음에서 초조해 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 -랑카팀 랑카오다.



우리들의 3월 이야기

-Raon Atti 7th-

_ Chathura ESSAY

줄지어 앉아있는 저 불상들 처럼
서로 다르면서도 닮은 다섯 도형이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말로 맞춰가며 살아가기 시작한 지금.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 접하는 것들뿐인 이곳에서
처음을 익숙함으로 바꿔가는 지금.

서로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또 다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그래서 지금이 소중한입니다.



3월 15일 밤 에세이

3월 7일, 나를 제외한 모두가 설렘으로 가득한 출발을 하고, 상기된 얼굴로 공항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렘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두려움만 가득 안고 출발하는 나는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출국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전날을 하얗게 지새운 탓인지 떨려오는 줄음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나는 공항에서 그 어느 3월 7일, 나를 제외한 모두가 설렘으로 가득한 출발을 하고, 상기된 얼굴로 공항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렘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두려움만 가득 안고 출발하는 나는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출국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전날을 하얗게 지새운 탓인지 떨려오는 줄음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나는 공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다. 이런 출발이 잘못된 시작이라면, 끝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이미 라운아피 기어 지원했던 이유와 라운아피를 통해 연구자 했던 목적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원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지켜온 모든 신념과 가치관마저도 생남개비 탐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져버린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스리랑카로 떠나버리는 건 너무나도 큰 모험이 아닐까? 우리팀을 제외한 다섯 국가를 모두 떠나 보내고, 출국 직전에 문제가 생겨버려서 비자발급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간사님들과 팀원들 사이에서 나는 줄음탓에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로 여러 고민들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스리랑카 하늘 아래에 머정이 서있고, 이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좋은 실든, 우리 팀원들과 YMCA 스태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것 보니, 어떻게든 살고는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명확한 목표와 이유는 없지만, 그런대로 추상적인 방향성은 잡혀가고 있고, 나는 그거면 족하다.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목표로 삼고 이 곳에 온 것이 아니기에, 일말의 실망감이나 좌절감마저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팀원들과의 생활과 YMCA 스태프들과의 생활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행복함이 더 크다.

그 연젠가엔 모두가 미웠던 적도 있었다. 단 한가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도, 단 한가지도 잘 맞는 것이 없는 팀원들도, 이런 나를 유유히 지켜보고 있는 스태프들도, 심지어는 나를 뽑아준 면접관들마저도 미웠던 적이 있었다. 차라리 뽑히지 않았더라면 걱지 않아도 됐을 고민들과 시련들을 예기치 않게 그들로부터 '선물' 받았고, 국내훈련 때의 나는 그 '선물'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 하나 선물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라운아피 단원소개에 한 자 한 자 적어 넣었던 나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기로 했고, 지금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나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는 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부질없는 짓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남에게 불만을 갖는 대신,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모든 상황에서 나 스스로를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나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출국하기 전 날 당 누군가에게 가만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넣었던 그 내용처럼, 잘 살다가 귀국해서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무런 기대 없이 두려움만 안고 출발선에 섰던 그 날은 어찌면 '잘못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잘못된 출발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혹은 썩 나쁘지 않은)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다. 어찌면, 스스로 떳떳한 끝맺음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에는 미로소, 지난 3월 출국장에서의 출발이 '잘못된 시작'이 아니었던 거라고 미약하게나마 자기위안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바다

켈름 에세이

처음

바닷가를 찾아갔다.

성당 뒤 작은 골목길을 따라

지나니 바다가 보인다.

지는 석양 위로 초승달이 어리고

드문드문 해가 져간다.

기차길을 지나

돌 틈 사이에 자리를 잡고

지는 해를 멍하니 지켜본다.

점점 멍해진다.

바다다.

스리랑카다.

아름답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비어있는 지금이 좋다.

채워갈 추억만큼이나

버릴 생각들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멍청해지고

바보스러워도 말이다.



라운아띠를 신청한 것도 합격통지를 받고 라운아띠를 떠나오자는 것도 온전한 나의 선택이었다. (물론 신청할 때 주변에서의 라운아띠를 신청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추천 정도는 받았다!)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국내훈련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훈련 이후 항상 내 머리 속은 온통 내가 왜 라운아띠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답을 정의하기가 힘든 물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자!’ 라는 말처럼 많이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라는 목표라도 갖는 것이었다. 물론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나의 결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나의 목표달성(달성은 못해도 근처라도 가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다는 것을 스리랑카에서 날씨와 음식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족함에 적응하면서 보낸 3 월동안 뺏속까지 느껴버렸다. 3 월은 나에게 폭풍 같은 기분변화와 나의 목표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품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래서인지 ‘나야나’ 또는 ‘정수경’ 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내가 알게 된 건 내 목표는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란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싫고 짜증나지만 적어도 5 개월 아니 이제 4 개월 뒤에는 꽤나 값진 시간이라 기억되길 바라면서 3 월의 일기를 마친다.

Nayana의

3월의 일기



스리랑카에 내가 이끌려 온 것은 나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의 20대를 돌아 봤을 때 즐겁고 소중한 추억에 하나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이곳에 와서 내가 받은 내 이름 ‘Khalpana’ 칼푸나, ‘생각’이라는 뜻. 처음엔 이 이름이 나랑 맞나? 이름이 어렵기도 해서 애착보단 의문이 들었다. 팀원들은 ‘이번 기회에 생각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면서 내 이름을 아름답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받아 들이게 되었다. 이름 때문인지, 나는 이곳 생활을 하면서 점점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머릿속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한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냈었던 것에 대한 의문과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다. 진작 생각해야 했던 것들인데 내가 도망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멀리하던 생각들을 이번 기회에 되짚어보게 되었다. 난 이곳 스리랑카에 와서 사소함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들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끼던 돌을 내 발로 굴러차고 새로운 돌을 찾으러 떠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즐기다 오자’라는 간단할 줄 알았던 내 목표는 좀 어렵게 느껴졌고, 더위와 새로운 생활패턴에 지치기도 했다. 그래서 조금씩 내 생각을 더 정확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아갈 한국에서의 생활, 이곳의 생활에서 내가 좀 더 평온하고 여유롭게, 또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칠 수 있는.

여기서 나는 사소한 행복. 루시루 집에 매일 같이 하루에 수십 번씩 드나들면서 엄마, 따따와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지내는 사소한 것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혼자서 멍-때리는 시간을 아쉽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기 좋아하는 나에게 시간을 천천히 가지는 방법과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을 선물해주는 것 같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엄청난 큰 선물인 것을,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여유롭고 느긋한 이곳 문화에 스며들고 또 한번 느끼고 잠든다.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 -랑카팀 랑카오다.

우리들의 3월 이야기

기
평
테